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동률
서강대 MOT 대학원 교수

‘별에서 온 상속자들’이란 영화를 보셨는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상속자들’의 인기로 편승해 중국이 최근 공개한 영화다. 제목이 시사하듯 성공한 두 편의 한국 드라마를 적당히 섞었다. 아예 ‘중국 최초의 합체 드라마’라는 설명까지 덧붙여 인기 한국 드라마를 짜깁기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알리고 있다.

더구나 중국은 이 영화를 한국에 역수출하겠다고 밝혔다. 상상을 초월하는 행태다. 예능 표절은 더 심각하다. 2010년엔 ‘청춘불패’를 따라한 ‘우상의 탄생’도 내놓았다. 제목만 다를 뿐 기획부터 시작효과, 배경음악은 물론, 출연자가 입은 옷까지 똑같았다. ‘모방이 아니라 복사’인

‘별에서 온 상속자들’이란 영화를 보셨나요?

것이다.

개그 프로그램 역시 판박이 수준이다. 최근 중국 장쑤위성 TV는 ‘개그 콘서트’의 핵심 코너를 그대로 베껴 KBS의 향의를 받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저작권을 침해한 베끼기에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중국 당국은 표절에 아예 눈감고 있다. 결국 중국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만 실질적인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상 해결책이 없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이래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북경에 사무소를 열고 보호활동을 하고 있지만 안하무인적인 중국의 태도에 존재감조차 찾기 어렵다.

나는 오늘날 미국으로 상징되는 서양의 가치 못지 않게, 중국으로 대변되는 동양의 가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 관점에서 서양도 매력적이지만 아무래도 한국인이다 보니 동양의 무위자연적인 면이 가슴에 와 닿는다. 월터럼 포크너의 율함과 분노(The Sound of Fury)의 난해함 보다는, 양귀비를 잃은 당 현종이 베개낫을 적시며 연리지정(連理枝情)을 노래한 백낙천의 장

한가(長恨歌) 한 구절이 가슴에 와 닿는다. 솔직히 햄버거보다 중국집 짜장면에 훨씬 더 정이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근대 행태를 보면 문득문득 나의 이같은 호의가 빛바래져 감을 느낀다. 중국이 어떤 나라인가. 중국인은 예로부터 자신들만이 세상의 중심이자 유일한 문명국가로, 자신들의 황제가 온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어왔다.

2000년 전 통일 진나라 이래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 선린 관계를 유지해 온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자발적인 복속과 굴종이 아니면 장갑을 앞세운 무력 정복을 통해 자신들의 발밑에 꿇게 해 왔다. 이것이 중화주의의 요체다.

그런 중국이 긴 침체기를 끝내고 두려울 만큼 굴기하고 있다. 중국 스스로도 이제 세계 최강국이라는 자부심이 곳곳에 넘쳐 보인다. 명동거리로 찾은 중국 관광객의 어깨에도 잔뜩 힘이 들어가 있다. 식당이나 백화점에서 큰소리로 떠들며 두들린 지갑을 여는 그들의 표정에는 이미 한국을 깔보는 표정이 역력하다.

기성세대가 중국인들에게 발마사지를 받아 보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라는 우

스갯소리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이제 온갖 짝퉁 컨텐츠나 불량상품을 쏟아내더라도 문제를 삼기가 어렵다. 연전에 북경의 자금성 내 스타벅스 매점이 고공의 존엄을 훼손하고 있다는 글이 블로그에 등장한지 몇 달 만에 쫓겨났다. 합법적인 계약서는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고공점 폐점에 대해 중국인들은 ‘스타벅스 구축’(驅逐·쫓아냄)이라는 황당한 표현을 사용하며 승리감을 만끽했다. 나이키, 구글 등등 초대형 기업들도 힘센 중국 앞에 양들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나는 중국이 강대국으로 굴기하는 것을 닷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을 믿고 세상에 군림하려는, 콤플렉스에 가득찬, 이 무례한 대국이 마뜩은 것이다. 오랫동안 동쪽 오랑캐(東夷) 취급을 받으며 온갖 시달림 속에 가까스로 여기까지 온 한반도 작은 나라에 사는 나는 거만한 이웃의 등장에 적잖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알아야 한다. 많은 세계인들이 중국을 주목하고 있지만 존경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냉엄한 현실을.

의료칼럼



강채미
백담나무한의원 원장

서양에서는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갈지 않고 집에서 레몬차를 뜨겁게 마시거나 푹 쉬고 땀을 내는 정도의 자기치료를 많이 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한약과 거의 유사한 허브티 같은 대체 의학이 감기치료에 각광을 받고 있다.

실제 감기에 대한 치료는 증상 완화를 위한 대증치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고 통증이 있으면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는 식인데, 증상의 정도나 종류에 상관없이 꼬박 1주일이나 지나야 낫는 게 특징이다. 걸리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걸렸다 하더라도 최대한 잘 관

감기 예방을 위한 한방 상식

리하는 게 중요하겠다.

감기는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발열·오한·두통·기침·콧물 등 여러 증상을 가진 질환인데, 바이러스란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활동성이 강해지므로 똑같이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도 그 당시 체력과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가볍게 지나가고 아닌 사람들은 심한 감기 증상으로 고생하게 된다. 갑작스런 기온이 떨어지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인체가 그에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다.

아침 저녁으로 영하에 가까운 추위가 있는 시간대에는 반드시 보온이 잘 되는 옷을 입어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환경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물리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한다.

머리가 아프거나 오한이 들면서 콧물이 좀 나는 등 초기 감기 증세가 있을 때에겐 뜨거운 차를 계속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약간의 땀이 나게 해주는 게 좋다. 한의학에서 감기는 풍, 한이라

는 외부의 나쁜 기운이 몸에 들어와서 발생한다고 본다. 이 풍, 한 사기는 몸을 통해서 배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기 때문에 발한법을 초기에 쓰는 것이다.

몸도 많이 아프면서 목까지 같이 아플 정도로 초기 증상부터 중증이라면 한약 처방을 받는 게 좋다. 한의원에서 감기 치료도 모두 보험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상에 맞춘 보험 한약 처방을 받아 복용을 한다면 쉽게 감기 증상을 이겨낼 수 있다.

목감기부터 시작해서 열이 많이 나고 침을 삼키기 어려울 정도로 편도가 붓는다면, 이때는 염증이 급성으로 심하게 온 경우이므로 양약인 항생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게 좋다. 또 비타민과 수분 섭취량을 대량으로 늘리면 감기 예방과 증상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 레몬차나, 유자차, 생강차 등 비타민 함유량이 많은 차를 따끈하게 자주 마시고 온수를 수시로 마셔서 탈수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감기에 걸리면 소화기도 전반적으로 기

능이 약화된다. 감기 시에 너무 기름지고 단단한 음식이나 차가운 음식을 먹게 되면 쉽게 체하거나 장염 유사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감기에 걸렸을 때와 회복기에 는 소화되기 쉬운,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다. 동의보감에는 증에 맞는 한약을 복용하되 그 복용법까지 상세히 나와있다. 약을 복용한 후에는 미음을 뜨겁게 한사발 먹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온 채 몸을 약간 내야 한다는 내용이 그 예이다. 이것은 약물치료 뿐만 아니라 평소 생활습관 및 사후관리까지도 치료의 연장으로 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약이든 양약이든 복용 후 다시 과로를 하고 찬바람을 맞게 되면 감기는 일주일도 끝날지 몰라도 그 후유증으로 오랜 시간 기침을 하거나 기관지염, 폐렴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사소한 증상 하나도 몸에서 보내는 신호이므로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내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습관을 평소에 들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기고



문용운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바야흐로 단풍이 절정이다. 요즘 형형색색, 울긋불긋 불타듯 현란한 색상으로 물들어가는 가을 산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불현듯 남도출신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 한 구절이 아련하게 떠오른다.

“새빨간 단풍들은 계곡의 물까지 붉게 물들었다. 주황빛이나 주홍빛의 단풍들 사이에서 핏빛 선연한 그 단풍들은 수탉의 붉은 벚처럼 싱싱하게 돌아 보였다.” 바로 지리산 피아골의 단풍 절경을 묘사한 대목이다. 무등산 국립공원 정상도 가을 정취의 으뜸인 역사와 단풍이 어우러진 만추(晩秋)의 서정에 젖어있다.

이처럼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곱고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와는 달리 다른 한편

기후 변화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광주

으로 세계는 지금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현상의 가속화로 기상이변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5차 보고서에 의하면 21세기 후반 우리나라 기온은 5.7°C 상승하고 폭염일수도 현재 7.3일에서 30.2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이변은 더 이상 ‘이변’이라 부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미국 기상학자 제프 매스터즈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기상이변이 일상화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기후변화 여건 속에서 광주시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대비 30% 감축 이행과 2050 탄소중립도시 광주 실현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기후변화에 대한 총출력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광주시 기후변화대응조례 제정, 온실가스 감축목표관리 및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기후변화적응대책 부문별 세부시행계획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종합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재)기후변화대응센터를 전국 최초 설립해 지역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정책 연구사업과 시민교육 홍보

의 상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광주시가 최초 실시해 전국으로 파급된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실천운동인 탄소은행제는 올 9월 말 기준 33만7000여 가구가 가입해 가입률 63%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오는 11월 광주를 방문해 탄소은행제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며, 외국에서도 탄소저감 실천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대기질 또한 2011년부터 전국 7대 도시 중 가장 우수하게 나타나 정주도시 및 첨단 과학 산업단지로서 최적 조건을 갖춘 청정 산소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2년 연속 ‘국제전시회 인증’을 획득한 ‘2014국제기후·환경산업전’, 한·중·일 3개국 기후네트워킹인 ‘동아시아 기후포럼’, 전국 16개 기후관련 기관단체로 구성된 전국협의체인 ‘전국 기후포럼’ 등을 개최해 환경산업에 대한 관심 제고를 물론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내는 등 국내외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런 결과로 광주시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전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기후변화센터(CCC)로부터 최근 ‘제4

회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를 수상했으며, 한국생산성본부(KPC)로부터 기후변화대응 선도 지자체 수상기관으로 선정돼 11월4일 수상하게 된다.

또한 중국 광저우 국제도시 창신상(혁신상)에도 도전해 세계 57개 국가 177개 도시에서 제출한 259개 과제 중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광주시 녹색생활 시민실천운동인 ‘탄소은행제’가 15개 도시에 입선돼 최종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 제상인 맹상군의 ‘교토삼굴(狡兔三窟) 이야기’는 앞으로 닥쳐올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준비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다는 면에서 소중한 교훈으로 다가온다. ‘슬기로운 토끼는 세 개의 동굴을 미리 준비해 닥쳐올 미래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내용이다.

그렇다. 광주시도 이런 관목할 만한 성과에 결코 자만하지 않고 우리 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변화대응대책을 더욱 알차고 착실하게 마련해 광주가 꿈꾸는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푸른도시’ 도약을 향해 더욱 야심차게 매진해야 할 것이다.

社說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당국은 대체 뭘 하나

신안군 내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체벌·폭행하고 개집에 감금하거나 쇠사슬로 묶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뤄진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장애인들을 마치 중범죄자나 짐승 취급을 한 것이다.

27일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시설장이자 목사인 K(62)씨는 수시로 장애인들을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고 무릎을 꿇리는가 하면 직원들이 퇴근한 후 일몰 전후에 장애인들을 마당에 있는 개집에 갇아 함께 감금하기도 했다 고 한다. 피해자 중에는 11살 아이도 있었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 8명은 밖에 나간다가거나 손가락을 뺀다는 등의 이유로 2m 길이의 쇠사슬에 발이 묶인 채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했다. 장애인들은 K씨와 법인이 소유한 마늘, 콩, 양파 밭에 동원돼 일을 했지만 대가도 받지 못했다. 이 시설은 또 장애인 수당을 유용하고 재할애

필요한 훈련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운영에 있어서도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목사라는 신분으로 이렇게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관리감독 기관인 신안군은 지난 2011년부터 인권침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기에 담당 공무원은 거주 장애인의 친척이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시설장의 고충을 대변하며 민원을 취하하라고 권유까지 했다니 직무유기이자 범죄를 조장한 셈이다.

전남도 등 감독기관은 인권위가 권고한 이 시설들을 즉각 폐쇄하고 다른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이 같은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큰 만큼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제도적 방자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사법당국 역시 고발된 K씨를 중죄로 다스려야 하며, 관련 공무원들도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북한서 온 주민들에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탈북 주민들이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는 한편 생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렵사리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들어오더라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최근 광주에서는 한 30대 북한 출신 주민이 쓸쓸한 죽음을 맞았다. 지난 2003년 홀로 탈북했던 그는 공장에서 일하며 10여 년을 지냈지만 한국사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남한의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탓에 사기를 당하고 과음 때문에 간경화를 앓다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북한 출신 주민들이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선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북하나재단에 따르면 광주·전남 거주 탈북 주민 1235명(광주 579명·전남 656명) 중 취업자는 5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임시·일용직이 37.6%로 직업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다. 또 78.4%는 평균 월급 150만 원 미만으로 대부분

궁핍한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어떻게 일자리를 구한다 해도 북쪽과는 너무 다른 직장문화로 인해 6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직장을 떠나는 경우도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연히 주거도 열악할 수밖에 없다. 광주·전남 지역 북한 출신 주민 중 92%가 국민·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가장 높은 장벽은 남쪽 사람들의 비호적인 시선이다. 북한 출신 주민들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는커녕 막연한 편견으로 그들의 정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문화적 이질감을 겪지 않도록 그리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온전한 한국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 모두 말로만 인권도시를 떠들 것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그들을 안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태산이 떠나갈 듯이 요동을 치고 울적이더니 막상 튀어나온 것은 쥐새끼 한 마리뿐이었다.” 요란하게 일을 벌였으나 별로 신통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예고만 떠들썩하고 실제의 결과는 보잘것없는 경우. 그러한 때 우리는 흔히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란 표현을 쓴다.

이 한자성어는 칠언절구의 형식까지 갖췄으니 중국의 고사에서 비롯됐을 것이라 생각되는 사람이 많을 듯하다. 하지만 뜻밖에도 원전은 이습우화다. 다만 중국에서 그럴듯하게 의욕을 해서만 들어낸 말이라는 것이다.

이습우화의 내용은 이렇다. 산등성이 마을에서 땅이 들썩이자, 마을사람들이 모여들어 격정스럽게 지켜봤다. 신화 속 티탄족이 튀어나와 세상을 쓸어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땅에서 솟아오른 건 쥐 한 마리였고, 사람들은 모두 아이없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성경 표현을 빌리자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그 끝은 미미한’ 경우라 하겠다. 이 말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BC 65 ~ BC 8)의 ‘시학’에도 나온다. 그는 시 짓기에 관한 한 편의 긴 시를

썼는데 “시시한 시인의 작품일수록 첫머리가 너무 거창하다”며 따끔한 지적을 한다. 산들이 산고(産苦)를 겪어 우스꽝스러운 쥐 한 마리를 낳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호라티우스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카톡’의 ‘폴립 문구’로 사용하기도 하는 ‘카르페 디엠’의 원저자이기도 하다. 그의 라틴어 시 “현재를 잡아라.(Carpe diem)가 급격 내일인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의 부분 구절이 바로 ‘카르페 디엠’인 것이다.

‘카르페 디엠’

이 말이 유명해진 것은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덕분이다.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소년들이여, 삶을 비상하게 만들어라.” 얼마 전 자살로 생을 마감한 로빈 윌리엄스(존 키팅 역)의 명대사다.

오늘(11월27일)은 호라티우스가 세상을 떠난 날이다. 2000년 전의 시인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동안에도 질투하는 시인은 이미 흘러갔을 것”이라며 “면 미래의 욕심을 가까운 내일의 희망으로 바꾸라”고 조언하는데... 올해의 달력도 어느덧 마지막 한 장을 남겨 놓고 있다. 나는 무엇을 했는가. 덧없이 흘러가 버린 세월이 안타깝다. /이홍재 논설교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9500) (F A X 227-9500)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 F A X 227-9500 >	디 자 인 실 2200-536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프 로젝 트 팀 2200-555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조 사 부 2200-571		프 로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